

한국에서의 르뽀기사의 현황과 전망

김병국

원광대 신방과 교수

I. 서 설

신문과 방송의 모든 보도가 다 사실을 기초로 전달하는 르뽀라고도 할 수 있다. 약간의 이견이 있겠으나 뉴스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이고, 기사란 신문, 방송 등에 쓰여진 뉴스보도라 할 수 있으며 자연 뉴스란 객관성을 내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뉴스의 객관성과 관련하여 순수한 객관성이 현상에 대한 보도만으로 충족되느냐의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근래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르뽀기사 또는 르뽀보도라는 것이 무슨 새로운 저널리즘의 개념도 아니며 특별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방법도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저널리즘의 전부인 양 또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사조인 양 생각될 것은 아니며, 보도를 좀더 현장에 들어가 현장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인쇄매체와 달리 TV의 경우 영상이 최고의 언어로 그대로 살아있는 현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으며 현장주면 이외의 기자의 리포트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다. 현장을 떠난 TV 사건뉴스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으로, 즉 TV는 현장 없는 비디오 없는 뉴스를 생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동 취재」, 「xx25시」나 「르포 xx 현장」, 「추적 60분」, 「MBC 리포트」, 「PD수첩」 등에서 신문·방송들이 르뽀란 용어를 자랑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거리나 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을 그만큼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그 보도기사나 프로그램에 현장감을 더 살려 만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르뽀기사란 보도에 있어서 사실성과 현장감의 효과는 물론, 그 동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널려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의 개선이란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사건 자체의 외형적인 사실보도뿐 아니라 전체 상황적 측면에서 정확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는 관심사에 대한 보도의 경우 르뽀를 통한 문제 제기적 효과를 갖기도 하며 이 경우 이런 고발성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런 식의 르뽀는 심층보도, 조사보도, 폭로보도 등에서 그 수단적 형식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나 형식이야 어떻든간에, 이들 현장취재 내지 추적물들은, 그간 방송국이나 신문사 데스크 위에서만 주로 요리되었던 인스턴트 식품류의 기사들에 식상했던 독자들에게 시골의 야채나 바다의 생선들을 직접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곧바로 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신선한 감을 주고 있다 또한 언론도 독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보아야 된다는 점에서도 요즈음의 이러한 새로운 기획들은 바람직한 것이다.

사실 그간에 우리나라 신문들은 너무 안이한 자세에 젖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층보도란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건의 일면이나 현장을 보여주는 피상적 보도에 반하여 사건을 될수록 자세하게 전달해 주고 그 사건의 원인 등을 포함한 모든 주변상황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사보도란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건이 탄 사실을 기자가 탐정과 같은 입장에서 그것을 찾아내어 밝히는 보도방식의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층보도와 조사보도를 설명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그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보도방식으로 취급되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조사보도는 심층보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 보도방식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이할만한 공통점은 이 두 보도방식이 모두 사건지향적(event-oriented)인 보도방식이 아니라 상황지향적(situation-oriented)인 보도방식이란 점이다. 여기서의 기획성 르포르타주는 그 성격상 심층보도라 할 수도 있고 또 조사보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목로보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류의 프로그램들은 심층보도와 조사보도 또는 폭로보도라고 할 수도 있어 모두 겹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든 르포르타주가 그 법이나 소재가 센세이셔널한 것이나 반드시 고발성격을 띤 것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능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분석해 보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고발이든 미담이든 혹은 동적인 내용이든 르포르타주의 기사가 될 수 있다.

II. TV 르포르타주의 현황과 문제점

TV 매체는 동시성, 동소성, 현실성 등 때문에 타 매체에 비해 현장감을 주는 상대적 르포르타성이 강하며 TV를 통한 고발성 심층보도물에 한 여파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간에 매우 크다. 마셜 맥루한의 말처럼, Cool Media 오서의 TV는 메시지에 대한 상상력과 이성적 판단의 노력의 투입 여부가 높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 비하여 르포르타주의 효과도 높다고 하였다. 즉, 전파의 속도만큼이나 빨리 사람 사는 어느 곳이나 동시에 전달할 수 있고, 영상으로 직접 사건 현장을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현실성이 있어서 많은 수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TV에서의 탐색보도와 심층보도는 우리의 현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문제가 갖고 있는 여러 상황과 실정을 깊숙이 고찰하는 점에서 서로 같지만, 후자는 전자의 보도형식보다 더욱 실증적으로 객관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해설까지 포함하는 점에서 쉽게 구별된다. 「PD 수첩」은 KBS-TV가 그 동안 방송해온 「르포 60」, 「동서남북」, 「현장기록, 요즘 사람들」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내용과 형식모두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제작진은 되도록이면 PD의 멘트(말)를 줄이고 화면을 통해 현장을 드러냄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이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방송이 안고 있는 한계인 일회성과 심층성의 결여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동시에 속제도 많이 남겼다. 고정출입 처나 담당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은 PD들이 직접 취재일선에 나서서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들을 점검하는 형식은 기자들이 취재보도하는 뉴스와 여러 면에서 좋은 비교가 됐다. 우리 TV 방송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고정적 심층보도물이 방영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KBS-TV가 일요일 밤에 방영한 「뉴스 파노라마」는 1980년 가을 칼라 TV가 방송되기 이전부터 당시에는 생소했던 TV의 심층보도라는 영역을 구축하면서 사회고발적인 성격을 띤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즉, 음주운전문제, 주택가에 파고든 사우나방 문제,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심각성 등을 심층취재를 통해 고발한 것이다. 또 하나의 심층 고발프로그램인

「추적 60 분」은 1983년 2월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미혼모 문제」, 「기도원 실태」, 「가짜시계」, 「가짜녹용」 등 150여 편을 방송하면서 사회고발의 성격을 띤 심층보도의 대표적 프로그램이 되었다. KBS-TV의 「추적 60 분」, MBC-TV의 「레이다 11」 등을 비롯한 여러 고발성 르뽀 기획프로그램들이 TV 화면을 통해 방영되어 노력한 만큼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근래 대표적인 심층보도로는 MBC-TV의 「PD수첩」(화요일 오후 11'00 방영)이다. 이 프로그램은 휴먼 인터레스트 보도기사와 같이 인간성 상실의 현장, 정책,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심층취재 방송함으로써 사회에 온기를 불러 일으키려는 프로그램인데 주로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한 세입자」, 「미국에 건너가 체불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피코크 노동자들」, 「지하철에서 노숙하는 지피족」, 「해직교사」, 「일본인의 한국관광의 실태와 그 대책」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일례로 전세값 문제를 다룬 기획의 경우, 자살한 세입자들의 위령제, 가족의 고통, 마지못해 이삿짐을 꾸리는 장면, 세입자의 푸념과 항변을 생생한 화면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게 했다. 또 제작진의 주관은 드러내지 않고 세 입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부의 정책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치밀함을 보여 우려되던 「심층성의 결여」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 MBC의 「PD수첩」은 5월 21일(월) 밤에 5·18 10주년을 맞은 광주에 표정을 일주일간의 현장취재로 생생히 전달했는데, PD수첩은 「광주희생자 사후처리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광주 관계자들이 내란죄로 처벌된 채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태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한 광주의 봄은 올 수 없다.」는 현지의 목소리를 실감 있게 전달하기도 했다. 방송이 미부에 빠진 현대사, 그것도 오늘의 문제에 카메라의 앵글을 밀착시키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5공때까지만 해도 보도 특집물은 대부분 정권홍보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인터뷰내용이 각색·편집되는 바람에 담당기자는 특집제작명령이 떨어지면 양심에 구애받지 않는 관련 인사들을 찾아 동분서주해야 했던데 비하면 큰 변화라 하겠다. 그리고 KBS-ITV의 「르뽀 60」(일, 오후 8:00)은 전에 내보내던 「추적 60 분」과 유사프로그램으로 긴 시간 동안 하나의 문제를 추적하여 이면에 내재된 사실과 허상을 사회에 고발함으로써 현장감 있게 진실과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MBC-TV의 「여론 광장」(토, 오전 10:00)에서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직접 해당된 사람들의 반응을 스튜디오와 현장을 연결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 내용을 보면, 「재벌그룹의 부동산 매각 실태」(5월 12일), 「아파트 분양가 인상」(5월 26일), 「목동아파트 불법전매」(6월 2일)를 다루었다. KBS-2TV의 「뉴스비전 동서남북」(일, 오후 9:40)은 「노사안정의 조건」(5월 2일), 「한국과 일본의 인력시장의 문제」(6월 3일)을 다루는 현장르뽀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20일(일)밤 KBS-2TV의 「뉴스비전 동서남북」은 노대통령의 방일로 쟁점화된 재일동포 지위문제의 실상을 한달 동안 추적한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를 방영했는데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는 「한국인임을 뒤늦게 알았을 때 몸부림치다시피 나를 일본인이라고 믿고 싶었다」는 어느 고등학생의 고백, 시모노세끼의 빈민촌에서 하루 7천~8천엔의 풍상으로 살아가면서도 고향의 친지들이 알까봐 애써 카메라를 피하는 노인의 몸짓, 자신들의 장래를 놓고 외교적 흥정이 오가는 시기에 동요

「까치 까치 설날」을 합창하며 조국을 배우는 교포어린이들의 모습을 비추며, 일본판 아파트헤이트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재일동포문제의 본질을 부각시켰다. 백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호소력과 설명력을 지닌 것처럼 TV가 전해주는 배경화면, 당사자들의 표정, 목소리 등은 언어에 의해 추상화되고 왜곡될 수 있는 실제적 진실에 성큼 다가서는 힘이 있는 좋은 르포르도라 할 수 있다. 「응급실의 실태와 그의 진단」(4월 28일)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선진국가의 실태를 비교하였고, 「자녀교육의 문제점」(5월 12일) 프로그램에서 무엇이 진정한 어린이를 위한 교육인지를 심층진단한다. 한편 5월 26일(토) 밤 정규프로그램인 MBC 리포트가 소리 없이 증발해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의 주제는 창립 1주년을 맞은 전교조문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 많은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이 언제 시작되나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설명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공익방송을 표방하는 MBC의 신뢰성문제는 차치하고 모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심층보도프로그램이 이번 일로 앞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정기성을 때지 않고 방영된 프로그램으로는 4일 동안 방송된 KBS-ITV의 「공해, 이대로 둘 수 없다」에서 환경의 오염실태와 그의 진단 및 대책을 고발하고 있다 KBS-ITV 양코르 목요기획 「파멸의 무지개히로뽕」(5월 13일)과 MBC를 예서의 「백색의 공포 마약」(5월 4일)은 현재 만연되는 마약의 실태와 그 복용실태와 대책에 대한 현장고발기사이다. 탐색보도로서 대표적인 것은 MBC의 「MBC 시사토론」(금, 오후 9:50), KBS-3TV의 「TV 심포지엄」(일, 오후 9:50)이다.

「MBC 시사토론」에서는 민영 TV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방송개편안이 방송 체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방송의 전개방향은 어떠한가(4월 27일)에 대하여, 그리고 만국과 대기업의 자세전환과 방향고찰(5월 4일)을 다루고 있다. 또한 「TV 심포지엄」에서는 「유교전통과 한국사회의 전통과 그 문제점」(4월 5일), 「북한의 변화와 그 방향」(4월 29일), 「우이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교육열」(5월 13일)을 다루었다. 그리고 세번째 유형의 르포르기사에는 K8S-1TV에서의 「다큐멘터리, 지구대기행」, 「현지보고: 세계를 본다」, 「현장기록, 요즈음 사람들」, 「한국 백경」, 「즐거운 세계여행」, 「전국일주」 그리고 MBC의 「인간시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TV 르포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특정사건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과장보도함으로써 시청자의 여론을 오도하고 관심을 특정분야로 쏠리게 하려는 보도태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특정사건에 대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에서 대서특필하고 모든 방송채널에서 연일 보도함으로써(이를 협화성이라고도 한다) 사회 전체가 한가지 사건으로 미쳐 돌아가게 하는 현상에서 극단화된다. 둘째로, TV의 속성 탓도 있지만 때로는 현장중계를 통해 생각할 여지가 없이 있는 그대로 사건을 수용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심층보도의 생명인 본질적 접근보다는 피상적 취재보도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로 사건이나 문제의 심층적 원인분석보다는 표면에 나타난 현상위주의 결과제시에 그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사건이나 문제의 전체 상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단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제시에만 매달려 있어 다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예방적 기능이나 문제의 치료를 위한 처방보다는 단지 드러내놓는 데만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즉, 심한 경우에는 문제제시에 머물러, 비리의 현장이나 부조리의 실재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욱 상태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예컨대 성윤리의 퇴폐현장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에 대한 충동과 욕구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남을 수도 있었으며, 또한 결혼세대의 현장을 추적하여 배금주의나 허식에 대한 반성을 가져다 주려 했던 제작의도가 오히려 잘못된 결혼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문제다.

III. 잡지 르뽀기사의 현황과 문제점

르뽀기사의 가장 보편적이고 유용한 전달 매체로 여겨지는 것은 잡지이다. 특히 잡지에서는 폭로 저널리즘적 성격을 띤 것이 많았는데 1987년 이후 언론이 개방화되면서 종합월간잡지들은 과거의 정치적, 사회적사건이나 인물들에 관한 「내막」이나 「비리」니 하는 이른바 「폭로물」 들로서 달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주간지든 월간지든 그 본질은 모두 흥미에 있고, 흥미를 북돋우는 것만큼 감각적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부수나 구독율을 보다 많이 올리려는데 있다. 따라서 폭로물기사의 「사실」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로 꾸며진 「사실」 들 즉, 픽션에 불과한 조작된 「사실」 들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월간 「신동아」와 「월간조선」을 선정 1988년 12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게재된 르뽀기사의 현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월간조선」의 경우, 기획 르뽀기사로는 「조갑제의 심층취재」, 「추적」, 「카메라르포」이고, 비기획르뽀로는 「심층분석」, 「철저해부」, 「특파원의 현장보고」, 「집중취재」, 「현장르포」란이 있다. 「신동아」의 경우는 기획르뽀로서 「89년 신동아 캠페인 주제토론」, 비기획르뽀로서는 「집중해부」, 「추적」, 「밀착취재」, 「철저해부」, 「집중조명」, 「특별기획」, 「심층취재」, 「완전폭로」라는 타이틀로 다루고 있다. 1988년 12월호에 「월간조선」에서는 「전두환의 청와대 메모」를 「조갑제의 심층취재」에서, 「집중취재」로 「육군사관학교」를 분석하고 있다. 반면 「신동아」는 「통합으로 달리는 재야운동권」을 집중취재 하였고, 「인권의 사각지대인 교도소의 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1989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월간조선」의 경우 심층취재된 사항은 「전두환 잔금 1백 39억원의 비밀」(1월), 「한국사회의 (문화대혁명)」(2월),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3월)였다. 또한 「보수대연합 가능한가」(1월), 「여의도 로비의 현장」(2월)이 심층분석되었으며, 「재벌백화점의 비리내막」(3월)이 추적란에 실렸다. 「신동아」에서는 「르뽀, 신동아 캠페인」에서 「서울공화국, 이대로는 안된다」(1월), 「지표로 본 거대도시, 서울시」(2월), 「교통지옥 서울」(3월)이, 그리고 「집중해부」한에는 「5공의 정치자금」(1월), 「국회의원의 돈줄」(2월) 그리고 「전민련과 전대협」(2월)이 다루어졌다. 1989년 4월에서 7월 사이에는 다음과 같다. 「월간조선」은 「조갑제의 심층취재」에서 「박대통령의 청와대 일기 원본」(4월), 「김현희는 말한다」(상, 중, 하)(5, 6, 7월) 그리고 「추적」란에는 「채벌부동산 투기」(4월), 「김일성의 정치학교의 실체」(6월), 「부녀자 납치매매조직」(7월) 그리고 「심층취재」에서는 「아파트값폭동내막」(4월), 「쿠데타는 가능한가」(6월), 「좌경운동권논리의 모순」(6월),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4월), 「화성, 미공군 사격장시위」(7월)가 현장에서 심층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신동아」는 「기획르뽀」로서 「부익부 빈익빈, 서울의

주택전쟁」(4월), 「위험수위 넘은 공해특별시, 서울」(5월), 「요지경 속 분당-일산 신도시개발」(6월), 「서울인구분산정책에 허점 있다」(7월)가 다루어 졌다.

「철저해부」한에서는 4월호에 「대한민국 관료의 중추 (사무관)1, 「팀스피리트는 무엇이 문제인가」가, 5월호에 「현대중공업사태진상과 전망」, 그리고 특별기획으로 「외국인이 증언하는 80년 5월 광주」 또한 6월호에는 「6·29 2주년 오늘의 상황」, 「의식화 교사 논쟁에 저의 있다」, 7월호에는 「전면적으로 치달는 교원노조공방」이 집중 취재되었다.

1989년 8월에서 12월까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월간조선」에서는 「박철언, 평양참관 미스터리」(9월), 「10·26 사태 7대 미스터리」(11월), 「노동당과 박정희 연구」(12월)를 「심층취재」란에서 다루었고, 「한국의 조직폭력」(8월), 「노태우의 청와대 사람들」(10월), 「군사대국 일본」(9월)을 「철저해부」한에서 다루었다. 또한 「영등포 을구 재선거현장」(9월), 「범·12 사태의 발단」(10월), 「6 광구 천연가스층」(4월)을 「추적」한에서, 그리고 현지르뽀로서는 「광주학생취직운동」(12월)과 특파원이 보고하는 「헝가리 공산당의 최후의 날」(11월)이 있다. 「신동아」에서는 「89. 르뽀캠페인」란에 「과포화 서울, 몸살 앓는 도시행정」(8월), 「서울, 비인간주의 도시」(9월), 「선기는 서울, 강남특별시, 강북보통시」(10월), 「빈곤과 풍요, 양극으로 치달는 서울의 두 얼굴」(12월)이 다루어졌다. 또한 「르뽀기사」로서는 「통일교의 1 조원 부동산 목록」(8월), 「뇌물, 지하경제 살찌우고 사회적 병리현상의 주범이 되는 정은 돈」(9월), 「민정당의 내분」(10월), 「재벌 국회의원들의 재산목록」(12월)이 포함된다. 그리고 「충격보고」란에 「전교조 공방의 쟁점」, 「고등학생 운동의 실상」(9월), 「4당의 정보전쟁」(10월)이, 「완전분석」란에 「주한미군의 철수」(10월)가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월간지들이 그런 따위의 비화니 내막이니 하는 것을 즐겨 실어온 것은 꽤나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매호 빠짐없이 많으며 5~6 건씩 즐기치게 싣고 있어 이전 비화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마저도 어지간히 식상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내막들에 대한 독자들의 상당한 수요가 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실은 잡지들이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들의 월간지가 단순히 오락적 역할만 아니라 강한 문제의식으로 민중의 지도자로서의 구실을 한데 비해 시장성에만 급급하는 요즘 우리 월간지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다. 또한 우리의 경우 잡지에서 르뽀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이를 명예로 알고 용기와 강한 문제 의식을 갖고 진상과 대결하는 전문적인 저널리스트가 아니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근래 잡지들이 르뽀물로 내놓은 기사를 보면 대부분 신문사의 기자들이나 이른바 「르뽀라이터」들이 부업처럼 써낸 것이다. 앞으로 제대로 된 르뽀저널리즘을 가지려면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적인 「저널리스트」를 키워야 할 것이다.

IV. 신문 르뽀기사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도 진작부터 TV 등 전파매체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신문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그런데 과거 20여년간이나 신문은 독자들의 요구와 비판의 소리를 외면한 채 카르텔이라는 온상속에서 안주하면서 고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매너리즘이 야기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신문내용의 천편일률적

확실성이라 하겠다. 한편 그간 신문은 극심한 언론통제 때문에 신문이 지면기획이나 보도와 논평, 그리고 편집의 측면에서 개성있는 발전을 못하기도 했지만, 만성화된 바람직하지 못한 취재와 보도의 관행 및 후진적 면별 기획과 밝은 편집국 편제와 그리고 전문성의 결여 등 신문제작상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신문의 개성과 특색이 부족한 한 이유로는 좋은 현장 르보기사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근래 와서 우리 일간 신문들의 지면에서도 「르포 xx 현장」, 「전국기동취재」, 「xx25시」라는 표제의 현장 취재물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으나 신문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르보식 보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속보성에 있어서는 신문이 TV를 따라갈 수가 없지만, 보도내용의 상세성에 있어서는 TV가 결코 신문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근래 많은 신문들이 심층보도방법을 활용, 신문의 장점을 살림으로써 TV와의 경쟁에서도 신문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사실상심층취재보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신문이 다른 매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950년대 초에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신문들은 그간 시대와 독자들의 변화를 외면한 채, 과거에 누렸던 권위와 영광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매너리즘 속에 빠져 TV 등의 새로운 매체와의 경쟁에서 뒤지게 된 감이 있다. 예컨대 그동안 일간지들에서 들고나온 현장취재물들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TV에서 먼저 시작한 「뉴스 파노라마」, 「뉴스 대행진」 또는 「추적 60분」 등 프로그램의 뒷북을 치고 있는 것 같은 인상도 전혀 없지는 않다. 과거에 신문이 했던 일들을 TV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영역의 침범 운운하고 떠드는 일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매체간의 절대적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매체간의 선의의 경쟁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은 이 르보식 보도나 심층보도의 문제는 단순한 보도상의 방법 자체에 관한 논의에 앞서, 이제까지 신문들이 사건의 표면만을 피상적으로 다루어왔던 것은 기자들이 게을렀고 또한 지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르보식 조사보도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며, 우리 신문의 경우는 신문사의 조직이나 그 밖의 조건이 모든 면에서 기자에 의한 조사보도를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다. 우선 기자는 예외없이 출입처에 배치되어 그 담당분야의 취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더욱이 장기간에 걸쳐 어떤 결론이 날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문제를 대상으로 기자가 「조사연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 신문의 일반적인 실정인 것이다. 편집국의 인력에는 그런 「사치」를 용인할만한 여유가 거의 없으며 일본 신문의 유군과 같은 조사요원도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고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이 다원화와 다양화의 구조하에서 이제는 경쟁체제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물론 신문이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했다고 해서 갑자기 읽을 거리가 많아지고 개성이 뚜렷한 신문으로 바뀔 수야 없겠지만, 특히 증면을 단행하면서 나름대로 개성을 나타내려고 심층취재나 새로운 소재를 찾아 르보식 보도를 통해 지면기획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화와 언론개방화에 따라 그 동안 터부시되던 곳이 열림으로써 우리에게 관심을 끌 르보식 보도의 대상이 많아졌다. 특히 근래 노동현장 등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대한 생생한 현지 르보기사 등도 돋보이며 또한 북방외교와 함께 공산권세계가 우리 앞에 개방됨으로써 중국, 소련, 헝가리, 동독 등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각종 여행기 또는 역사탐험기 비슷한 르보기사도 많아졌다.

V. 전 망

앞으로 매스 미디어를 둘러싼 언론환경이 달라지면서 언론개념과 보도방식은 물론이고 이에 대응하는 매스 미디어관계인의 의식구조도 달라져야 한다. 1987년 이래 외적 여건에서의 개방화의 물결이 있었지만 그간 2~3년은 이들 언론관계자들의 보수적이고 안일한 자세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변화는 크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경쟁적이고 개방화 된 체제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의 요구는 다양화와 질적추구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바 언론기업은 그 생존을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남다른 창의성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TV에 있어서도 민영 TV 방송이 설립되고 또 유선방송이 앞으로 조만간에 전국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신문, 잡지 등은 3년전에 비해 이미 언론매체수나 발행부수 등 양적으로는 2배 이상이 증가되어 경쟁의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또 사실 이렇게 폭주한 신문, 잡지들이 질적 개선이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처리방식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인 확실성을 띠고 있어 국민은 피곤하고 식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신문, 방송, 잡지 등이 이제 적극적이고 비판적이며 살아있는 독자와 시청자의 요구에 응하는 한가지 방법이 주관과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현장을 밀도 있게 제시해주는 르뽀보도방식이라 하겠다. 신문은 편집기기 개발로 독자선호중심으로 뉴스가치를 정하여 편집하는 새로운 신문제작기법이 등장할 것이다 신문의 텔레비전화를 비롯하여 신문이 뉴미디어와 기능적 연계를 맺어서 각종의 변형형태의 신문이 생길 수도 있다. 신문의 뉴스와 해설은 각양각색의 스타일과감각으로 세분화되고 특성화될 수 밖에 없다. 즉, 인쇄매체인 신문과 방송매체인 TV가 각각의 속성을 상호모방 함으로써 양자간의 유사성이 증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문은 칼라와 그래픽스를 과감하게 사용할 것이며 현장감과 박진감을 살리기 위한 「기자수첩」과 같은 소설 문체의 기사를 사용함으로써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시각화 할 것이다.

한편 TV는 신문 저널리즘의 장점인 심층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 피쳐물을 대량공급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와 자극을 원하는 시청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방송사는 TV가 갖고있는 강점 중의 하나인 동시현장중계를 통한 르뽀를 자주 시도하게 된다. TV의 르뽀식 현장동시중계는 과거에는 주로 국내사건으로 그 영역이 좁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통신위성의 발달로 세계 구석 구석이 중계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르뽀식 보도는 더욱 개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북방외교의 추진 및 민주화, 개방화됨에 따라 그간 금기시되던 소련, 중국, 동구권 나아가서는 북한 등 미지의 곳에 대한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생생한 리포트는 인기 있는 소재가 될 것이다. 6월 하순에 MBC 리포트시간에서 방영될 소련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숨결에 관한 것이나 「KBS 기획 90」에서의 베트남보고서도 이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MBC는 소련 알마아타와 타슈켄트지역에 산재한 한국인의 숨결을 취재한 「알마아타에 어린 한국의 한」을 제작 방영한다. 또 소련 알마아타의 국립 푸쉬킨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서 2천여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이며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책들이

그곳에 소장된 경위를 심층 취재하는 한편 한인 출신들이 많이 살고있는 타슈켄트와 알마아타 한인들의 삶과 문화생활을 살펴보고 한다. 한편 KBS는 사회주의 베트남을 직접 찾아가 르뽀형식으로 구성한 3부작 「베트남보고」를 베트남의 현주소와 미래 조명차원에서 방송한다 6월 6, 7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와 그리고 7월중에 시리즈로 방송할 이번 프로그램은 월남 패망 후 국내 TV로서는 (이전에 단편적으로 방송한 적은 있음) 처음으로 베트남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KBS는 「김일성, 인류 최후의 천재」를 6월 1일 밤 10시 제 ITV의 현지보고 「세계를 본다」를 통해 내보냈는데 이는 지난해 김일성 정권수립 40주년을 맞은 북한의 김일성과 그 일가를 폴란드 취재팀이 촬영하고 스위스 로망드 방송사가 지난 4월 제작 방영한 것이다. 이러한 르뽀의 대상은 그간 터부시된 지역에서 새로운 소재를 찾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지방화에 따라 소외되어 왔던 지방의 문화나 제반현실 등도 좀더 현장보고로서의 이러한 각광을 받아야 될 곳이다. 또한 노동문제, 교육문제, 사회복지문제 등도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르뽀되어야 할 대상이며 앞으로 지방자치 등 선거행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인 바 이에 대한 고발적 성격의 르뽀도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 외 기획여하에 따라 MBC-TV가 8월 방영예정인 「21세기 세계기술과학 현주소」 조명 같은 것은 좋은 소재라 하겠다 어쨌든 앞으로 개방된 언론체제에서 대량으로 쏟아지는 신문, 잡지, 방송물들이 국민에게 식상하지 않고 그 선호도에 맞춰 싱싱한 감각의 생선과 야채 같은 살아있는 메시지를 제공하려면 현장감을 주는 르뽀식 보도기사에서 그 방안을 찾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르뽀식 심층, 집중취재를 한다고 하여 그 르뽀보도 대상 사항만이 최대의 국가대사인 것처럼 인식시킴으로써 다른 국가대사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로 하여금 현장중계사항에만 정신을 쏟게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선 정부의 한견주의적 소떼몰이 방식의 홍보정책에 조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서울대 법대, 서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언론학)
- 저술: 「매스커뮤니케이션학 개론」, 「누구를 위한 언론의 자유인가」 (역)
- 현재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